

사설

승가다운 선거

조계종은 올 한 해 여러 선거를 치르게 된다. 중앙에서는 총무원장과 중앙총회 의장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방에서는 9개 교구본사의 후임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세속의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권에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보아 왔던 터라 장차 종단에서 치러질 선거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화사에서 치른 교계 최초의 본사주지 선거도 본사주지를 경선을 통해 뽑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 시사주간지는 최근호에서 종단 안에서 치르는 선거 역시 세속의 여느 선거권과 다를바 없이 인신공격과 심지어 금품매수설까지 난무했다고 서슴없이 인용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이 기사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고 해당 주간지의 사장과 기자가 사과를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 기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흥미거리가 된 뒤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왜 밖에서 나돌게 되었을까. 사실이든 아니든 안타깝기 그지없다.

장차 중앙에서 치러질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띤 지방에서의 선거를 두고 불교계 안팎의 분위기가 이렇게 과열된다면 앞으로 총무원장 선거나 총회의장 선거는 과연 어떤 것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단개혁의 한 축으로 본사주지를 임명제가 아닌 본사단위의 선출로 전환할 때부터 행여 전국의 본사가 선거 흥역을 치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은 일부 본사만이 직선을 택할 분위기고 대부분의 본사는 산중총회에서 문중차원의 합의로 조용히 후임자를 추대할 분위기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본사가 있는 한 세속의 이목은 끈질기게 따라 다니게 되고 그에 따른

불교의 위상 실추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일부 교구본사 주지의 뒷이야기가 괴문서로 나오는 것도 심심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그 좋고 나쁨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만으로 완벽성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단도 내부적 반성과 철저한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지 못하는 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불교계의 사회적 신뢰도를 올리느냐 낮추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승가에는 대중의 뜻을 모아 주지를 추대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현재 종단의 실정으로 보아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쓰는 승가의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다시 전통적 대중의견 수렴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임으로 예정된 선거를 치르더라도 불성 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내지 말자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한가지만은 꼭 지켜주길 주문하고 싶다. 그것은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자의 사회에서 수행자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제도하고 남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출가였고 지금도 그 수행의 길에 서 있는 사문이라면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초기화면의 시안도 대폭 수정했다. 봉축행사를 알리는 봉축관련 홈페이지에는 각종 행사 일정과 캐릭터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조계종에 바란다'는 방안을 게시판에 신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총무원장에 바란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방에 수록되는 내용은 총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

주소는 www.buddhism.or.kr

“종교벽 넘어 화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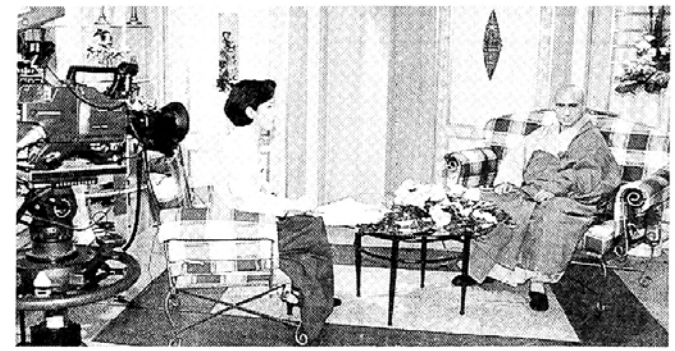
월주스님 평화TV 출연 '부처님 오신 뜻' 법문 광주대각사 목사·신부 초청 부활절 강연

종교간의 벽을 초월하는 각종 행사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12일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인근 주월성결교회 방철호 목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부활절인 이날 열린 초청법회에는 5백여 불자가 참석 방목사의 '자비와 사랑을 통한 남북통일'이란 주제 강연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불교사모연맹회장 현지스님등 지역 불교지도자와 이영일 국회의원외 의원, 광주가톨릭대 사회교육원장 조비오신부가 참석했다. 조비오신부는 방목사의 강연에 앞서 "부처님 탄신을 축하한다"는 경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대각사는 이날 대각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호산마을과 기독교가 운영하는 서울 상계동의 양지동산 결연식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일 오후 평화방송 TV의 인기프로그램인 '평화응답실' 코너에 출연,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종교화합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녹화된 50분 분량의 '평화응답실'은 28일 오후 1시40분, 6시10분 부처님오신날인 5월3일 오후 2시40분에 방영된다. 월주스님은 또 23일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들꽃 피는 마을'을 방문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종교화합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불교 자비원(원장 정각)은 이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종교로 가는 길'을 주제로한 초청강연을 갖는다. 26일에는 부산종교연구소 소장 송기인 신부가 27일에는 원불교 대진교당 김해선교무가 28일에는 시온중앙교회 정영



문 원로목사가 잇달아 강연한다.

26일 연등축제 회향마당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원불교 정녀, 수녀님들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영천 거조암(주지 해해)은 매일 나한 제일법회에 들어 온 시주금으로 영천시 소재 나자렛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등 6개 종교 인문인들도 '종교인문연합회'를 구성, 25일 경기도 일영 살림유스호스텔에서

창립대회와 심포지엄을 갖는다.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의 '종교 벽 허물기' 노력이 돋보인다. 종교를 초월한 성직자들의 교류는 다양화된 사회에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일 반적인 시각이다.

(임연태 기자)

'총무원에 바란다' 인터넷게시판 신설 조계종 홈페이지 재구성

조계종 종단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됐다.

조계종은 그간 운용해 오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구성해 15일부터 각종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는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초기화면의 시안도 대폭 수정했다. 봉축행사를 알리는 봉축관련 홈페이지에는 각종 행사 일정과 캐릭터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조계종에 바란다'는 방안을 게시판에 신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총무원장에 바란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방에 수록되는 내용은 총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

BBS에 9천만원 지원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방송 지원금 9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1일 성남속 불교방송 사장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어려움에 처한 불교방송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빼어난 지구 노력을 보이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고학력일수록 불자비율 감소

대졸이상 불교 10.8-개신교 23.1-천주교 9.8%

한국갤럽 97년 자료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개신교+천주교)신자의 비율이 불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학력 불교신자 포교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갤럽연구소)가 1997년 161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오차 ±2.4%)에 따르면, 고학력 대졸이상(대학 재학이상)은 불교 10.8% 개신교 23.1% 천주교 9.8%로 조사됐다. 고학력시대로 접어드는 사회변화 속에서 고학력자에 적합한 불교 이론

과 의식의 개발 등 적절한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 '고학력 시대의 불교의 진로'에서 동국대 김용표 교수(불교학부)가 '고학력자의 종교성향과 특징' 발표를 위해 갤럽연구소에 의뢰, 입수한 자료이다. <관련기사 9면>

조사자료에서 교육정도에 따른 종교성향과 특징(갤럽연구소 1990년/대상 1990명/오차 ±2.4%)으로는 학력과 종교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라고 답하고 있어 한국종교

의 전반적 신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기위해'라는 구도형 신앙의 비율이 초등졸 이하 4.3% 중졸 9.8% 고졸 9.9% 대졸 17.6%로, 고학력자일수록 기복형 신앙보다는 구도형 신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고학력자의 종교적 성향과 특징은 △치병의 경험을 제외하고 종교경험이 높다 △종교공동체 참여의식이 높다 △종교의 사회적 및 정치참여가 높다 △타종교에 대해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깨·사운동’ 가속화 해야”

불교시민단체 워크숍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깨달음의 사회운동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 기도나 좌선, 간경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개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이 15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최한 불교시

민사회단체 정책워크숍에서 순회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사회참여나 사회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그런 점에서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운동'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고 평가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필수적이고,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조직화된 운동만이

'운동'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불교운동은 깨달음을 위한 것인만큼 기도나 염불, 좌선, 간경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개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도 운동의 범주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 치운동중심에서 문화운동으로의 전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방향 설정 △투쟁의 연대보다는 화합에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과정 을 강조하는 운동 △비폭력운동 △사회변화와 자기수행의 통일 등 마음과 일상의 운동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극복-통일논의 28일 종교인 좌담회 실천승가회 초청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창화)는 2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IMF 국가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평화·지선(백양사 주지)스님을 비롯 함세웅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삼근목사(한국기독교서회 사장), 원불교(미정)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참회와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또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과 종교화합의 당위와 역할을 진단한다.

조계종 본사 7직 모임 일문회 5월 창립

조계종 교구본사 7직스님들의 모임인 (가칭)일문회가 창립된다.

5월16일 부산에서 창립법회를 갖는 일문회는 최근 열린 조계종 7직국장 연수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2차례 회의 를 갖고 정관작성, 회원가입 등 창립준비작업을 해왔다. 현재 일문회는 법주사 쌍계사 등 22개 교구본사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대불교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도시인의 정신을 맑게...

道峯山 국난극복 기원 念佛道場 一萬佛 造成佛事

募緣文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도봉산에 위치한 호암사 범바위는 예로부터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부처님 전에 기도하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동란에도 이곳을 피난처로 삼고 부처님 전에 기도한 공덕으로 재난을 무사히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부처님의 감응이 역력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근대 선지식의 한 분인 真空堂 呑星 大宗師께서도 이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조계종 최고의 환난극복기원불기도도량이 림직하다고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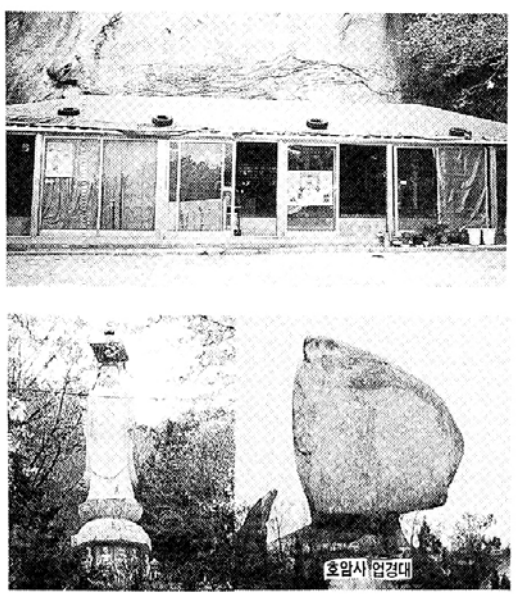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뜻에 부응하는 환난 극복기원 기도도량이 건립되기를 염원하면서 3월 27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1,000일 기도 정진중입니다.

이제 여러 신도님들의 원력과 신심을 담아 일일일불 조성불사 동참인연으로 과거 지은 죄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맺으며, 가정과 사회가 평안하며, 평화적 조국통일이 성취되고,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염불기도도량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발원합니다.

불기 2542년 무인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산 호암사 祖室 真空堂 呑星·주지 혜우 합장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27 · TEL : 0351)873-1386 · FAX : 0351)829-2323



- 불사안내 ●
- 일만불 조성불사
- 1일 1불 30만원
- 법당 및 요사채 물사
- 온라인 126-02-008353 (농협 예금주-호암사) 분할 입금 가능

- 범회안내 ●
- 매일 천일기도중 (오전 5시·11시 오후 3시·6시)
- 음력 매월 1~3일 : 신중특별기도
- 음력 매월 15일 : 미타기도
- 부처님 오신날 (장엄등 1년 5만원, 일일등 (당일) 성의껏 공양하십시오)
- 기 타 : 1호선 회룡역에서 차량운행합니다.